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예루살렘의 번영 성경: 시편 128편

Tag: 구원 >Salvation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128:1-6)

구원과 복은 기독교인의 삶에 두 날개와 같다.

구원의 날개 복의 날개로 훨훨 날아가야 한다.

영생이 죽어서 얻는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의 종류도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아멘.

구원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에는 사정상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복만 받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은 변수가 너무 많다. DNA와 생각과 성격과 습관(mbti)과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디 출신인지(esp 국가), 경험과 재능과 가정환경과 가문의 전통과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는 구원 받은 사람이 복도 받는다. 우리 개신교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두가지다. 우리 모두 구원 받고 복도 받자. 아멘.

죽지 못해 산다는 말도 있는데,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뜻.

고난 중이라도 소망을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열매, 작은 수입이라도 열심을 품고, 소망중에 실패를 거울 삼아 정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성경은 이런 구원의 조건을 잘 가르쳐 준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수고하는 것,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5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구체적인 구원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1절 +2절 +5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대상이 누구냐? 귀신이나? 조상이냐? 남편이나? 아내냐? 자식이나?

-‘내가 누구의 눈치를 살피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의 조건 중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비교급으로 따질 때 누구를 더 경외하는가이다. 경외의 질도 있는데, 바로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진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의 길을 걷는 것.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다.

-이것도 핑계 대지 말고 깔끔하게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힘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되고, 초라해 진다.

-물론 그런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또한 개인에 따라 질적으로 다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네가 직접 번 돈으로 먹게 되리라는 말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것은 죄.

-많이 일 했는데, 적게 주려는 것도 죄.

-적게 일하고 적게 받았는데, 사치하는 것은 분수에 어긋나는 짓. 복이 안 됨.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의 이름, 즉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한다.

-산은 높은 곳, 안전한 곳, 하나님 곁, 거룩한 곳,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한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리는 위험한 곳 보다는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교인으로 사는 삶이 벼락부자 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흠가분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편만 봐서 그런다.

-결국 강한자나, 나약한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다.

이처럼 구원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영생은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영생에 대한 시식코너가 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다.

그러면 복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아닌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시대별로 개인별로 상황별로 구원에 대한 경험은 모두 다르다.

부요하게 사는 것이 복 같아 보이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눅12:20)

모든 부요한 사람이 다 지옥 가는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상황별로 지옥에 갈 부자가 많다. 그러나 원래 부자가 가난한 자들보다 숫자가 적으니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로 지옥 가는자가 더 많다. (부자 중 80%(-99%)가 지옥가고, 가난한 자 중 20%라 해도 역시 지옥에서는 가난하다 지옥 온 숫자가 더 많게 된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흑인이 민주당이란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산다. 물론 모든 흑인이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복받고 사는 흑인들은 왜 복을 받았을까? 아까 언급한 1,2,5절 말씀에 포함된 구원의 조건과 관계있다. 복 받은 흑인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있는 집에 사는 것이란다. 어머니가 있는 집이 아닌, 아버지가 있는 집.

행복한 가정생활이 복이라는 뜻이다.

3절에 보면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살다 보니 깨닫는 것은 모든 개신교인 가정의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는 않더라. 비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표현도 잠언에는 나온다.

15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잠27:15)

요즘에는 워낙에 편차가 많아 수학적 계산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도 같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생활은 매우 중요한데, 밥만 먹는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청년들과도 밥을 먹어야겠어)

-교회에서도 애찬이 매우 중요하다.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식구란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동체와 동화하고, 서로 스며드는 것이다.

-식사하면서 서로 예절을 지키고 책임감을 배우고 감싸주고 본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곧 복이고, 천국의 예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것은 나라의 번영을 뜻한다.

- 복된 나라가 있고, 불쌍한 나라가 있다.
-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이다.
-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전파 되면서 소위 대박난 나라다.
- 훌륭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 그분은 당시 온 국민의 아버지였다.
- 그분이 5.16 이후에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실 때도 대부분의 국민이 아쉬워했다.
- 국민이 미워한 사람은 이기봉이었지, 이승만이 아니었다.
- 거의 늙은 노인이었기에 온전한 정신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모시는 분위기였고, 다투는 선거는 부통령이었고, 4사5입도 부통령 선거였다.
- 당시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승만대통령이 지시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고 있었다.
- 4.19 의거도 이기봉을 통해서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거한 것을 확인하는 즉시 해야 하셨다.
- 대통령이 제일 잘 해야 하지만 대통령만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은 아니다.
- 온 국민이 잘해야 한다.
- 지금은 나라가 이념으로 둘로 갈라져서 온통 정쟁 중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고, 만약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라면 두배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중보기도하고, 경건한 대통령이라면 최대한 협력하면서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 나라는 번영해야 나라다. 부패한 나라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 나라는 오직 번영해야 비로소 제 구실을 한다.
- 워낙이 적국도 많고, 나라를 흔들려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 특히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는 이스라엘처럼 똘똘 뭉쳐야 한다.
- 천국 가기 전까지 온 개신교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적과 내적을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 아멘.

누구도 상상치 못한 대단한 일을 해냈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잘 조화롭게 풀어냈는데,
 한국교회가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거 같아 안타깝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터 주실 것이다.
 아직은 시작이고 더 험난 한 길이 있을 터인데, 큰 일이 닥쳐도 이상한 일이라 여기지 말라.
 사람은 연약하나 기도하는 자는 강하다.

고맙고 축복한다.